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의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의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18일과 21일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의 전술 훈련을 지도하시고 훈련이 정말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군부대의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겠

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을 평양에 부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솟구치는 격정

을 누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저어 답례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훈련으로 밤을 밝히고 새날을 맞으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높은 위훈속에 빛내여가고있는 군인들을 고무격려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참

가자들이 앞으로도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실천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더욱 역세제 준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자랑스러운 훈련성파로 기쁨을 드린 영광의 시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전투정치훈련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조국을 선군의 총대로 굳건히 사수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민주공화국준비위원회결성식이 1월 22일 김사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민주공화국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케렐레 갈론다가, 부위원장으로서 민주공화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공화국-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 위원장 오메데 가스통 음보요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민주공화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김정일각하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뿐 아니라 세계혁명의 수령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자주성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위대한 사상리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론적무기를 안겨주시었다.

또한 필증의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었다.

김정일각하께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자주와 진보,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우리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준비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집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혁

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베네수엘라준비위원회가 1월 23일 라라주 바르끼세메도시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친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베스가, 부위원장으로서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 위원장 디에고 안토니오 리베로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혁명발전에서 조선로동당의 역할과 김정일동지의 업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말레이시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5일 돌보 엔터프라이즈회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말레이시아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돌보 엔터프라이즈회사 사장 준비위원회가 1월 23일 라라주 바르끼세메도시에서 결성되었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세계자주화위업과 인민의 행복,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그이를 세계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25일부

터 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집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것이다.

한편 광명성절경축 로씨야사회계준비위원회가 1월 23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빅토르 베드로브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에는 각 단체, 기관의 저명한 인사들이 망라되어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끼르기즈스탄, 체코, 로므니아, 스위스, 영국, 기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서도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베닌, 싱가포르, 나이지리아에서 독보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 빠스칼 준체메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독보

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

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강성대국의 불모라》, 《오늘의 평양》 등 우리 나라 영화들 감상한 나이지리아의 각계 인사들도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만민을 감동시켰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은 자주와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이다.

싱가포르 동해선박사인유한공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18차 김정일화축전 준비사업 활발

제18차 김정일화축전 준비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조선 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은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대반들려 성대히 진행되는 이번 축전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충성의 꽃축전으로 빛내일 일념밑에 축전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여 더욱 붉게 피어난 김정일화》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종전과 달리 내용과 형식이 새로운것으로 하여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충정의 세계를 잘 보여주게 된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정중히 모시고 매전시대마다에 꽃바다가 펼쳐지게 될 축전장 총형성도안이 특색있게 완성되었다.

축전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방법을 받아들여 위인칭송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최세의 천출위인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열기로 하여 온실마디에서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있다.

인민무력부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등의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일념안고 김정일화를 정성다해 피우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료해운성, 경흥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꽃재배에 필요한 빛조절과 온습도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축전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축전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 외무성, 대성지도국, 봉화지도국, 인민봉사총국 등에서는 형성도안에 반영된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전시대들을 특색있게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 있다.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가정들에서도 이번 축전에 전시될 태양의 꽃들이 만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지난 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인 군사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는 결단을 내릴것을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현실을 반영한 가장 광명정당한 요구이다.

그것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에서 크지 않은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행위의 중지는 불신과 대립을 해소시키고 북남관계

군사적적대행위는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생존권전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이다.

쌍방이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어느 일방의 군사적대행위는 상대방의 대응을 낳게 되며 결국은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이 또다시 터지면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있었던 6.25전쟁과 질적으로 다른 가장 위험천만한 전쟁으로 될것

이다.

그때가서 우리 민족은 사랑도, 산천도,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도 다 잃는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된다.

하기에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군사적대행위의 전면중지를 제안한것이다.

관계정상화는 군사적대행위의 중지로부터 시작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를 원한다면

공화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키 리쥬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일반군사훈련이 아니라 철두철미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다.

이 연습에 참가한 침략군부대들에 할당된 타격목표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중요대상물이고 이 연습체제안에서 계획된 대규모적인련 합상목표작전인 평양강점을 논리게 되어있는 엄연한 사실만 놓고서도 군사연습의 침

략적성격을 뚜렷이 실증해지고있다

상대를 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도발중의 도발이며 가장 엄중한 군사적대행위이다.

외세와 야합한 침략전쟁연습의 중지야말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될것이다.

군사적대행위라는 기본 장애물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때 진정한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며 바로 여기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방도가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사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구바의 브렌싸 라피나통신과 멜로호방송, 웨남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 몽골 문자매체통신,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메루신문들인 《메루 21》, 《라 레부블리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전문 또는

오지로 전하였다. 중국의 《료닝일보》와 동북망, 로씨야의 인터넷통신, 신문, 잡지들인 웨남신문들인 《년전》, 《웨남 뉴스》, 벨라리아의 포쿠스통신과 신문들인 《프루드》, 《24시간》, 체코의 인터넷통신들, 로므니아신문 《뉴 유럼》, 프랑스잡지 《르 부앙》, 우루과이의 신문 《라 후벤투드》, 세.에게스36라지오 센테나리오방송, 뉴질랜드신문 《뉴질랜드 헤랄드》, 에티오피아 TV방송, 앙골라의 신문 《쥬르날 드 앙골라》, 국영TV방송, 민족라디오방송, 미국의 폭스뉴스, 신문 《워싱턴 포스트》,

중앙아시아인터넷통신 씨에이-뉴스 그리고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구루바, 로스토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끼르브주체사상연구협회, 벨라루시공산주의군로자당, 우크라이나 크림주체사상연구협회, 브라질공산당,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협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인터넷홈페이지들은 《조선 남조선당국에 북남사이의 적대행위를 끝장낼것을 촉구》 등의 제목으로 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내용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은 겨레는 6.15통일시대를 통하여 이 철리를 절감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채택이후 남북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사이의 화해의 봄이 오고 끊어진 지역과 혈맥이 하나로 어지는 감격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북남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상상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루어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참으로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

였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길임을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었다.

종계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6.15의 성과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오늘의 가슴아픈 현실은 대결과 전쟁소동,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이 초래한 비극이다.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더 이상 용납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뿐이다. 현 정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본사기자



— 중앙식물원 김정일화온실에서 —